



농수산물 수출

Zoom In 55호

I 집중컨설팅으로 샤인머스켓 수출 탄력

II GSP 토종닭, 키르기스스탄 수출 재개

III 나주배, 아르헨티나 첫 수출길 올라

IV 토마토 수출 지원을 위한
베트남검역관 초청 사업 실시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55호 2018. 10. 19(금)

‘18.9.30까지 농수산물식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68.7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19.5% 898백만불	  1.9% 4,208백만불	  1.7% 1,765백만불
+ 인삼류, 파프리카, 배 - 채소종자, 백합, 장미	+ 음료, 라면, 맥주 - 껌, 커피조제품, 설탕	+ 참치, 김, 고등어 - 삼치, 오징어, 넙치

국가별

* 對베트남 쌀 무상원조 실적(1만톤, 16.3백만불) 제외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홍콩 321백만불(12.9%) ▶ 대형마트 연계 한국 소스류 판촉(계속)	 인삼류(81%), 맥주(10%)  설탕(△24%), 유자차(△10%)
 중국 1,083백만불(9.4%) ▶ COSTCO 연계 한국가공식품 판촉(6.10~계속) ▶ 샤오홍슈 미용기능성식품 온라인 홍보판촉(계속)	 인삼류(52%), 라면(7%)  설탕(△17%), 김(△13%)
 ASEAN 1,304백만불(7.0%) ▶ Kofco 연계 한국가공식품 판촉(5.25~계속) ▶ 레드마트 연계 한국수산물식품 판촉(계속)	 음료(38%), 김(21%)  껌(△30%), 인삼류(△1%)
 미국 770백만불(3.3%) ▶ Amazon 연계 한국배 온라인 홍보판촉(10.8~11.30) ▶ 푸드트럭 연계 소비자체험홍보 추진(계속)	 라면(29%), 김(10%)  껌(△41%), 굴(△16%)
 파프리카(10%), 참치(9%)  제3맥주(△29%), 김(△1%) ▶ YAHOO JAPAN 연계 온라인판촉 추진(계속)	일본 1,564백만불(△0.2%) 
 라면(312%), 음료(6%)  커피조제품(△42%), 참치(△11%) ▶ 프랑스 2018파리국제식품박람회(10.21~20.25)	EU 445백만불(△8.1%)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18. 1. 1 ~ 9. 30



“ 유자차 ”

- ◇ 일본 가을시즌 대비 유자차를 활용한 카페 메뉴 확대 등으로 수요 증가
- ◇ 미국 현지 주요 유통매점 입점 등 현지 마켓 진출 노력에 따라 소비자 수요 확대 지속

27,723천불(11.9%)

▶ 주요 수출국 : 중국(13,241천불, 19.3% ↑), 미국(3,795, 66.2), 일본(3,558, △7.8)

“ 맥주 ”

- ◇ 중국, 홍콩 내 유통 중인 한국 ODM 생산 맥주 제품의 인기에 따른 판매량 증가 및 높은 수출 성장세가 9월 기준 첫 1억불 수출액 기록



▶ 주요 수출국 : 중국(69,042천불, 106.2% ↑), 홍콩(27,043, 10.1), 이라크(7,020, 37.7), 미국(3,647, 20.0)

122,118천불(56.3%)



“ 전복 ”

- ◇ 국내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일본 및 동남아시아 수출 증가
- ◇ 베트남 활전복 수출 증가 등으로 전체 수출은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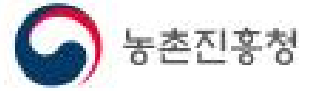
47,293천불(27.3%)

▶ 주요 수출국 : 일본(31,352천불, △11.0%), 중국(10,220, 6,860.8), 홍콩(1,681, 79.3), 베트남(268, 526.2)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농진청 이슈



집중컨설팅으로 포도(샤인머스켓) 수출 탄력

농촌진흥청은 2016년부터 농식품 생산에서 안전관리, 유통, 저장, 가공에 이르기까지 수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합동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농업인들의 애로기술 해결 능력이 향상되면서 수출국 맞춤형 고품질 농산물이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10월 17일엔 경상북도 상주시 산떼루아 영농조합법인에서 「샤인머스켓 포도 중국 수출 기념식」을 가졌다. 24농가가 모여 포도를 생산하는 이 법인은 2015년 베트남, 대만 등에 시범수출을 한 이후 지난해 90톤을 수출했으나 현지에서 과실 일부가 물러지는 현상이 발생해 클레임이 제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농진청에선 컨설팅 집중관리단지로 선정하여 재배방법과 병해충 관리 등의 기술지도를 꾸준히 하여 물러짐이나 병 발생 문제를 해결하였다. 올해엔 고급 과일을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무려 200톤을 계약하였고 37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수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유황 패드와 흡착제를 활용한 선도유지 기술을 지원하여 수출기간을 12월말에서 내년 2월말로 2개월 연장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컨설팅으로 현장 애로를 해결하고 수출국 기준에 맞춘 안전한 농산물 생산방법, 신선도와 품질 유지관리 기술개발 등을 강화해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



[유황패드 이용 MA포장 기술 투입 수출]

[MA 포장 및 유황패드 포장 랑기 저림]

[채리 후 100일]

[무처리]

GSP 토종닭, 키르기스스탄 수출 재개

골든 시드 프로젝트(이하 GSP) 종축사업단의 'GSP 한협토종닭'이 2년 여 만에 키르기스스탄 수출길에 오른다(10월 중). 'GSP 한협토종닭'은 (주)한협원종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학계가 함께 개발하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에 등재가 확정된 우리 토종닭 품종이다. 키르기스스탄은 다른 육류보다 닭고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카자흐스탄과 미얀마, 러시아 등 주변 나라로의 수출 가능성도 높아 씨닭 사업의 수출 전진 기지로 삼고 있다. 수출 재개물량은 씨알(종란) 2만 개로 현지 씨닭 농장에서 2대(씨알→씨닭)에 걸쳐 생산한 뒤, 약 60주 후 고기용 닭이나 달걀로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수출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등에서 토종닭의 경쟁력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종자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토종닭 100만 달러 이상을 목표로 수출 시장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GSP 한협토종닭

▼키르기스스탄 현지 수출전진기지 모습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나주배, 아르헨티나 첫 수출길 올라

검역본부는 작년 11월 아르헨티나 검역당국과 배 수출검역요건 최종 합의 후 금년 2월에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을 제정한 바 있다. 동 요건에 따르면 수출 첫 해에는 아르헨티나 검역관을 초청하여 한국 현지에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주지역에서 아르헨티나로 배 수출을 요청하여, 검역본부는 아르헨티나 검역관 1명을 6일간(9.16~21) 초청하였다. 한-아르헨티나 식물검역관들은 수출 참여 과수원 5개소(나주2, 영암2, 함평1) 합동 점검 및 금천선과장에서의 합동 수출검역을 실시하여 5.7톤의 배를 아르헨티나로 처음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19차 국제기준안 마련 아태지역 워크숍 개최

검역본부는 '18.9.10~9.14일 5일간 서울 씨미트호텔에서 20개국,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9차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식물검역 국제기준안 마련을 위한 아태지역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IPPC의 국제기준 제(개)정 전에 지역기구별로 의견 교환을 위한 워크숍이다. 우리나라는 '06년부터 아태지역보호기구(APPPC) 주관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참가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식물위생용어집을 포함하여 5개 국제기준(ISPM)에 대해 협의하였고, 내년에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토마토 수출 지원을 위한 베트남검역관 초청 사업 실시



검역본부는 '18.9.17~9.21일 5일간 국산 토마토의 베트남 수출지원을 위해 베트남검역관 3명을 초청하였다. 베트남으로의 토마토 수출검역요령은 '13년도에 이미 제정되어 있었으나 선뜻 나서는 생산자단체가 없어 그동안 수출이 되지 않다가, 금년 초 김해-진주 2곳에서 수출을 희망함에 따라 재배온실과 선과장을 먼저 검역본부에 등록하였고 동 요건에 따라 베트남 측에서 우려하는 14종의 검역병해충에 대한 무발생포장 증명을 받기 위해 베트남검역관들을 초청한 것이다. 베트남 측의 최종 승인 회신이 온 뒤로는 검역본부의 수출검역만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